

“좋은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건 공부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곡의 경연일기

이이 지음

1575년(선조 8) 9월 경연의 자리. 선조는 북방의 후금이 심상치 않다는 상소에 대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말할수를 하고 만다. “조정에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으니 이들을 데려다 막으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울곡 이이는 ‘큰소리치는 사람’이란 실력이 없는 사람일 텐데 어찌 적을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만일 유신(儒臣·유학자 신하)들을 큰소리치는 사람이라 비꼰 것이라면 양 해왕과 제 선왕을 만나 선정을 감론한 맹자도 목소리만 큰 사람이냐고 물으며 비판한다.

울곡을 왜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정치가로 꼽는지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 나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오향녕 전주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번역한 ‘울곡의 경연일기’는 울곡의 직언에 얽힌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남세에 읽는 정치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애썼던 이이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또한 직언에 맞서지 않고 침묵으로 신하를 배려했던 선조의 인간적인 면모도 담겨 있다.

책은 1565년(명종 20) 7월, 문정왕후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해 1581년(선조 14) 11월까지 약 17년간 ‘경연’을 무대로 한다. ‘경연’의 사전적 의미는 “입금이 학문이나 기술을 강론·연마하고 더불어 신하들과 국정을 협의하던 일”이다. 이 경연과 관련된 일기라면 조선 중기의 정치 지형과 당대의 모습을 조감할 수 있다.

울곡은 경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조에게 “좋은 정치”를 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올린다. ‘경연일기’의 전반부, 울곡의 충언과 비전에 대해 선조는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나마 인정한다.

하지만 울곡의 기대와 달리 선조의 망설임은 더해가고 번번이 옛 규례를 고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댄다. “나는 덕이 없는 데다 다스리기도 어려운 때를 만나 큰일을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울곡은 선조의 이런 태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주상께서는 ‘좋은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하시나, 신은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 전하에게 여색에 깊이 현혹되었습니까.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술을 즐기십니까. 말 타기와 사냥을 좋아하십니까.”

울곡은 좋은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공부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충언한다. 그러면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 있는 신하를 기용하여 일을 맡기면 된다고 덧붙인다.

〈너머북스·2만9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천국의 문’ ‘양들의 역사’ ... 한국소설 흐름 대변



천국의 문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경욱 외 지음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출간됐다.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이상문학상은 현대 소설의 흐름을 대변하는 미학의 절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발간된 ‘천국의 문-2016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광주 출신 김경욱 작가의 작품과 자전 수상작인 ‘양들의 역사’가

실렸다. ‘천국의 문’은 한 개인과 가족에게 드리워진 부정(女性)과 부정(父情)의 상실을 통해 상처입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그 해체를 면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버지를 돌보지만 한편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욕망하는 딸의 내밀한 시선은 파괴된 자신의 삶과 유예되는 아버지의 죽음 사이에서 갈망한다.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과 병과 죽음 그리고 가족공동체의 해체 등 여러 겹의 문제들을 한데 응축시켜 놓고 그 현재와 미래를 응시한 듯하다”고 평한다.

한편 작품집에는 우수상 수상작인 김이설 ‘빈집’, 감탁환 ‘양들의 시간’, 윤이형 ‘이웃의 선한 사람’, 정찬 ‘등불’, 황정은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등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문학사상·1만3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그리스 신화에서 현대 소설까지 ... 즐거운 문학여행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

존 서덜랜드 지음



BBC 라디오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무인도 디스크’에서 두 질문을 한다. 일단 질문을 받는 출연자들은 무인도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 출연자들은 무인도에 음악 여덟 곡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이 곡들을 들은 후 질문이 이어진다.

하나의 질문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이다. 기막힌 대답이 나온다고 한다. 어떤 이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가져가고 싶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청산가리 알약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어 진행자가 또 하나 질문을 한다. “가장 가져가고 싶은 책은 무엇인가?”(성경이나 셰익스피어 작품은 제외다. 이전의 무인도 조난자들이 택했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은 대개 고독한 삶을 달래줄 문학작품을 선택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제인 오스틴이 가장 인기 있는 작가로 꼽힌다.

‘무인도 디스크’라는 프로그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문학의 중요한 가치와 기능이다. 사람들은 삶에 있어 문학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



서양문학의 시초인 신화의 한 장면,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 계관사인 테니슨의 일러스트레이션(위로부터).

한 사람들이 문학을 ‘소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비한 뒤에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식탁에 놓인 음식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이는 문학은 처음 소비할 때처럼 여전히 구미를 동하게 하는 무엇이라는 의미다.

런던 대학교 존 서덜랜드 명예교수가 펴낸 ‘풍성한 삶을 위한 문학의 역사’는 다시 읽는 문학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위대한 작품의 감동은 고갈되지 않으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선사해준다는 것이다.

책은 노장의 체취가 느껴질 만큼 지식의 폭이 넓고 문체가 유려하다. 그러면 서도 ‘변화’에 대한 촉수도 놓치지 않는다. 저자가 말하는 변화는 문학에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본요소다.

문학은 전달 매체에 있어 형태의 변화

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종이책에서부터 전자책에 이르는 변화는 새로운 방식의 읽기를 견인한다. 미래에는 비전통적 방식(청각, 시각 그리고 ‘가상현실’ 형태)으로 문학을 접할 것이다. 또한 순식간에 배탈되고 읽는 이의 취향에 따라 주문 제작될 것이다. 일명 ‘팬픽’(팬 픽션, 팬이 쓰는 소설)이다.

이러한 문은 문학작품은 조각품처럼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전제와 일치한다. 고전적인 의미의 저자와 독자를 가르는 구분은 사라진다는 말이다. 저자는 이처럼 책의 변화의 양상을 아우른다. 인간 정신의 변화는 문학을 담는 도구의 변화든, 그럼에도 문학작품은 시대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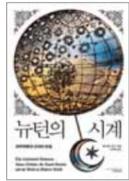
저자는 서양 문학의 시작인 신화에서부터 출발해 모든 장르를 횡단한다. 서사시, 비극, 셰익스피어, 성경, 밀턴과 스펜서, 본격적 소설, 그리고 현재 21세기 경계 없는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문학은 더 이상 특정 나라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학에는 변화라는 역동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문학은 때로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기도 하면서 스스로도 변화해왔다”고 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문학의 가치와 의미가 아닐지.

“문학, 인간 정신의 멋진 창조적 산물은 새로운 어떤 형태를 취하든 어떻게 각색되든 영원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삶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낳을 아이들의 삶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주는 시계처럼 정교한 법칙따라 작동한다



뉴턴의 시계

에드워드 돌닉 지음

“우주는 시계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법칙을 따라 작동한다.”

이 생각은 어떻게 시작되고 정리되었을까? 또한 과학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을까? 뉴턴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과의 낙하는 달을 포함한 천체의 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현상

이었다. 사과는 그저 떨어졌고 달과 별은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과학혁명의 태동과 그 후폭풍이 세상을 뒤엎을 시대를 영화처럼 풀어낸 책이 나왔다.

에드거상 수상작이자 과학전문기자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돌닉의 ‘뉴턴의 시계’는 과학이 진화해온 역사를 다양한 그림 자료와 함께 풀어낸다.

뉴턴 이후로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자연철학에 머물러 있던 과학은 비로소 방법론과 목표를 도입한 근대 과학의 단계로 진입한다.

〈책과함께·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시대 석학 16인이 전하는 실천하는 삶



나를 발견하는 시간

양영은 지음

노엄 촘스키에서 네리 옥스면에 이르

기까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석학 16인이 전하는 실천적 생각법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출간됐다. 양영은 기자가 MIT에서 2년, 하버드에서 1년의 시간을 석학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석학들은 스스로 묻고,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세상과 공유하면서 성숙해 가고 있었다. 저자는 그들이 사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기본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가치를 특별하게 실천하는 삶’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그 시간이 나에게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들 역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독자들도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각정원·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등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약식 12,500원	8,500원	5,000원
약식+특별식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국내산 참나무장작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전남권 전지역 3루베이상 무료배송 (일부지역 제외)

절단목

쪼갬목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장작구이, 캠핑용 등 각종 용도별 생산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